

## 제주도 전통 산속(産俗)의 의미 이해

이 경 화\*

### 【 목 차 】

I. 들어가기	제2장. 출산방법
II. 제주도 전통 산속의 문화적 기반	제3장. 산후속
III. 제주도의 전통 산속	IV. 나오기
제1장. 산전속	

### I. 들어가기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방식은 한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자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회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형성자이다. 한 사회의 산육(産育)에 대한 신념은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되고 하나의 문화로서 전승되는 것이다.

전근대사회에 형성되어 해방 전·후의 시기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사회의 산속(産俗)<sup>1)</sup>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국가 간 비교나 통과 의례적 의미 고찰을 목적으로 문헌상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발굴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sup>2)</sup>. 노인 면접을 통해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에 대한 자

\*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1)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 산후처리를 포괄하는 ‘출산속(出産俗)’, ‘출산민속(出産民俗)’과 동일한 용어로서 ‘산속(産俗)’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다음의 문헌들이 여기에 속한다.

강지영(1994) 「조선 전기 아동교재의 내용분석」,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3.

김승관(1993) 「거제도지역의 금기생활」, 한국문화연구 제6호, 부산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pp.464-481.

김중숙(1989) 「조선시대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

류점숙(1987)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대한가정학회, pp.141-152.

신양재(1994)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pp.291-228.

\_\_\_\_\_(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한국아동학회, pp.183-196.

오미경(1991) 「전통사회의 태교사상과 산육속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문헌 중심으로」,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0.

료를 수집하여 체계화한 유안진의 연구<sup>3)</sup> 또한 한반도 중심의 사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거나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통 산속에 관해서는 한반도 외의 부속 도서의 현지조사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제주도 전통 산속에 관해서는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일부 연구와 전통문화의 한 하위분야로서 산육속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몇몇 문헌이 있을 뿐, 전통적 출산과 육아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sup>4)</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통사회라고 통칭되는 해방 이전 시기에 출생하여 전통문화를 체험한 세대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 이들로부터 전통 산속에 관한 자료 즉, 기자속(祈子俗)<sup>5)</sup> 및 태교와 같은 산전속(産前俗)과 출산처치와 순산주술과 같은 출산방법, 그리고 산모 및 신생아 관리, 탄생의례와 같은 산후속(産後俗)의 구체적 자료를 발굴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전통 산속 자료에 대한 실제 조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현지 노인들의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발굴하고, 이렇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 제주 전통사회의 문화적 기반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의 범위를 자녀의 출생 이전에서부터 물애기<sup>6)</sup> 시기까지 실천했던 산전후 습속으로 설정하고 제주 전통사회의 출산이전 습속(기자속, 태교실천), 출산방법(출산처치, 순산주술), 출산이후 습속(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탄생의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전통 산속 자료를 수집, 발굴을 위해 현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접(2002년 12월~2003년 2월)하고, 이와 함께 관련 문헌조사를 보완적으로 병행하였다. 면접은 제주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지역 단위로 무선적으로 표집한 후,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준표준화 면접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노인들은 해방 이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영유아기를 보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여자 노인 134명으로, 이들이 출산하고 양육한 자녀수는 평균 4.5명(남아 2.2명, 여아 2.3명)이었다.

오선명(2001) 「한국 전통 산속의 교육적 의의」,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6.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가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8.

윤여송(1987) 「전남지방의 산후속」, 호남대학 논문집 제 8집, 호남대학교, pp.9-36.

이경복(1979) 「조선시대 산속 연구」, 한국민속학 제 11집, 민속학회, pp.47-64.

하수연(1999)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80.

한양명(1999)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 16호, 비교민속학회, pp.109-127.

3) 유안진(199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부, pp.121-199.

4) 강문정(1988) 「일부 제주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8.

고부자(1976) 「제주도의 산후속」, 한국민속학 제 9집, 민속학회, pp.93-111.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1-76.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 문화』, 제주도교육청, pp.368-370.

5) 기자속(祈子俗)이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기원하는 습속을 통칭한다.

6) 제주도에서는 갓 태어난 신생아기로부터 돌전후의 어린 아기를 일컬어 통상 <물애기>라고 명명한다.

면접의 내용은 크게 출산 이전과 출산방법, 출산이후의 습속으로 나누어지며, 기자속(자녀관, 기자습속), 태교실천(임부의 권장사항, 임부의 금기사항), 출산처치(조력자, 자세, 태반 및 탯줄 처리), 순산주술(심방의 역할, 순산처방), 산모관리(산욕기간, 산욕방법), 신생아관리(수유, 세욕, 의복), 탄생의례(금줄, 삼일메, 치셋메)의 7개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자는 제주도내 유치원교사 14명(평균 연령 35.92세, 평균 교직경력 13.78년)으로, 면접에 앞서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면접내용과 면접 및 기록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면접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일차적 자료와 함께 관련 문헌들을 보완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유사한 응답내용끼리 묶어 요약한 후, 빈도 및 백분율 산출을 통해 양화하였으며, 영역별로 내용분석 하였다.

## II. 제주도 전통 산속의 문화적 기반

문화가 역사라는 시간과 풍토라는 공간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주체에 의해 생성·전승되어 온 것이 전통 혹은 전통문화이다. 전통문화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재한다는 시간적 차원의 지속성과 특정의 지역에서 형성되고 전승되는 공간적 차원 그리고 그러한 시·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체적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제주도의 전통 산속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이란 요소로 형성되는 문화적 기반 위에서 그 특징과 의미가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전통문화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저항과 생존 투쟁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독립적인 형태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해 오던 고대 부족국가 탐라가 고려 태조 때부터 중앙정부의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근대 이전까지 관원들의 수탈에 휩쓸렸으며, 근대 이후에도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의한 군사, 정치, 산업적 전략지로 변모하면서 시련의 역사를 지내왔다. 한마디로, 지배층의 수탈과 이민족의 침탈로 인한 곤욕과 행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제주도민의 의식과 환경에의 대응양식을 형성해 나가는데 작용하였는데, 이를테면 강인불굴의 정신과 상호부조 및 신뢰로써 비참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해옴으로써 축적되고 체질화된 것이 바로 제주도민의 삼무정신(盜無, 乞無, 大門無)이며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으로서 제주와 한반도 본토, 또는 ‘중앙정부’와 ‘제주’라는 분리주의적 의식이 발전해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7)</sup>.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형성 또는 강화되어 제주인의 자녀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전통 산속을 이해하는 데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역사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간적 관점에서의 제주 전통사회는 삼다(風多, 石多, 女多)와 삼보(海物寶, 山菜寶, 言語寶)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란 기반 위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으로 하천은 거

7)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pp.21-26.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pp.281-290.

의 건전이며, 토양은 화산회토로 척박했던 반면, 해산자원과 식물종은 풍부하였으며 지리학적으로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 본토와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북방문화를 그리고 해류를 통해 남방문화의 유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제주인들은 풍부한 각종 해산물과 식물종을 이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독립의식, 근검절약의 정신을 강화시켜, 존양정신<sup>8)</sup>과 분가주의<sup>9)</sup>, 균분상속, 제사분할 등의 의식과 가족제도 등을 통해 제주의 각박한 풍토적 조건에 대한 극복에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전통사회는 척박하면서도 풍요로운 환경 여건에서 형성된 특유의 토착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상호융합하면서 제주도라는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특수문화권으로서의 독자성을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적 특성은 출산 전후 임산부들을 위한 음식, 행위 등의 권장 및 금기 사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제주의 전통 산속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러한 공간적 측면에서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주체적 관점의 제주의 전통문화는 제주도민들의 노동을 통한 현실 극복과 무속적 민간신앙을 통한 현실에의 초월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의 전통사회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노동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사회였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빈부의 차가 많지 않은, 노동을 기반으로 남녀의 평등, 재산의 평등이 형성된 사회이기도 하였다<sup>10)</sup>. 제주 전통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제주 여성들에 관한 연구들에도 나타나 있듯이<sup>11)</sup>, 여성 활동의 근본인 평등주의가 제주사회의 일상적 인간관계의 지배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여성의 가치관은 능력 위주로 자주성과 실재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부녀자들의 출산과 육아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동으로서 현실세계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나타내는 한편, 생활고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는 심리로 무속적 민간신앙에 의존하는 이중성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제주 전통사회의 주요 문화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무속은 고유의 신앙 형태로 도민의 전 생활 영역의 지주 역할을 하였으며, 놀이, 어업, 무혼, 질병치료 등에 기능하면서 성행하였던 바, 출산과 육아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양식으로서 중

8) 쌀을 저장하는 고방(庫房)에서 식량을 조금씩 덜어 비축해 두는 것으로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줌씩 덜어 작은 단지에 두는 것으로서, 호남지방의 '좁도리(절약) 정신'과 유사하다.

9) 제주의 전통사회에서는 집의 구조를 안거리, 밖거리로 배치하여 장자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생계를 꾸미도록 하였다.

10)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85.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신행철 편,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pp.403-424.

\_\_\_\_\_(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출판부, pp.103-113.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pp.93-96.

11) 윤치부(2000)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삶」, 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차 워크숍자료,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pp.7-22.

정순덕(2000) 「제주도 여성교육의 역사」, 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차 워크숍자료,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pp.33-57.

한정운(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1.

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현실에의 초월적 심리는 제주도 전통사회에서 자녀관 및 양육관, 심방의 역할과 각종 심리치방적 습속 등으로 표현되면서, 벽사(辟邪)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III. 제주도의 전통 산속

#### 제1장. 산전속

##### 1. 기자속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자녀관에 있어서는 딸보다는 아들을 중요시하였다. 아들도 하나가 아닌 다남을 원했을 정도로 남아선호가 높았다. 이러한 다남의 원인은 가족주의적 가치관에서 볼 때 그리고 농경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당시로는 우선 ‘많이 낳고 보자’는 태도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복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일찍이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기자속이 널리 행해졌고, 주술적 행위로서 아들 잉태의 희망을 갖도록 한 주술기자속, 특정의 음식을 먹는 것 음식기자속, 특정의 사물이나 상징물을 몸에 지니는 물품기자속, 인간 이외의 초능력을 지녔다고 생각되는 선신 또는 선한 신성을 지닌 대상을 감동시켜 아들을 낳으려는 치성기자속 등이 널리 행해졌다<sup>12)</sup>.

남아 잉태를 기원하고 또 잉태를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한 피면접자 31명(23.19%)의 반응에서 제주도의 전통 기자속의 방법에서 찾아본다면, 절에서 불공을 드리거나, 백일기도를 하는 등의 치성기자, 약이나 생선, 장닭 등을 먹는 음식기자, 점을 치거나, 아들 낳은 집에 가서 3일째 되는 날 밥을 얻어먹거나, 돌하르방 코를 긁어먹는 등의 주술기자, 아들 낳은 집 아귀구덕을 두 다리로 넘거나, 아들 낳은 집 아이 옷을 얻어다 옷장 안에 넣거나, 임신 4주쯤 도끼 자루를 베개 속에 남편 몰래 놓아두는 등의 물품기자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자속은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남아 잉태를 위한 노력과 유사한 한편, 남아선호적 자녀관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 중 103명(76.9%)은 ‘여아보다 남아를 더 낳고 싶어 하거나 낳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이 강력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해준다. 육아과정에서의 남아, 여아간 차별 유무에 대해서도 90명(67.2%)의 응답자가 차이 없이 대등하게 길렀다고 대답하였으며,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한 44명(32.8%)의 피면접자의 경우에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제주 전통사회에서 한반도 본토에 비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력하지 않았던 데에는 제주의

12) 유안진(1990) 전계서, pp.28-57.

최인학 외(2002)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민속원, pp.185-189.

환경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제주도민의 대응양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형적으로 대규모의 집약농업 형태가 아니라 밭작물 농업이 보다 가능했던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여성의 섬세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심지어 잠수가족이라 하더라도 농사에 필요한 여성의 몫을 모두 감당하면서 물질을 하는 이중의 역할이 상례화 되어 있음에 따라 가정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매우 컸다.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든 극복해 내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제주인은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있는 한 노동에 의지해야만 했었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여성의 역할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증대되고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작용할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 2. 태교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인격체로서의 태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태교를 중요시 여겼고 이러한 태교를 중시했던 증거는 수태 전과 후의 섭취음식과 태도, 언행 등의 권장 및 금기사항들에 대한 민간 구전 뿐 아니라,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3)</sup>.

제주도의 경우, 태교실천 유무에 관한 질문에 피면접자의 11명(8.2%)만이 태교를 실천했다고 응답하여 태교를 중시하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임신부들의 태도나 언사, 행동, 섭취 음식 등의 권장 및 금기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임신부의 권장 및 금기사항

구분	내용	
	권고사항	금기사항
태도, 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하고 편안한 마음 갖기</li> <li>· 고운 아기 낳았으면 하는 마음 갖기</li> <li>· 좋은 말 자주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쁜 이야기 하지 않기</li> </ul>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한 아이 사진보기</li> <li>· 고운 것만 보기</li> <li>· 기도하기</li> <li>· 태아에게 노래 들려주기</li> <li>· 바른 행동하기</li> <li>· 남을 도와주기</li> <li>·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li> <li>· 예쁜 것만 먹기</li> <li>· 음식 잘 먹기</li> <li>·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굶은 일 보지 않기</li> <li>· 장애인 가까이서 보지 않기</li> <li>· 더러운 곳 앉지 않기</li> <li>· 나쁜 사람, 물건 보지 않기</li> <li>· 급히 불려도 빨리 나가지 말기</li> <li>· 물건을 품속에 숨겨 다니지 말기</li> <li>· 문턱 넘지 말기</li> <li>·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li> <li>· 무거운 것 들지 않기</li> <li>· 몸을 차갑게 하지 않기</li> <li>· 소, 조랑말 조심하기(말줄 밟지 않기)</li> <li>· 놀라지 않기</li> <li>· 구석으로 가거나 앉지 말기</li> <li>· 밤에 바깥에 나가지 않기</li> </ul>

13) 전통 태교에는 훌륭한 아기를 낳기 위해 지켜야 할 제약이 많았고, 이러한 내용은 「胎中訓文」, 「東醫寶鑑」, 「戒女書」, 「士小節」, 「閨閣叢書」, 「胎教新記」, 「海月神師法說」 등의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분	내용	
	권고사항	금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서운 곳 피하기</li> <li>·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li> <li>· 약 먹지 않기</li> <li>· 썩은 과일 먹지 않기</li> <li>· 불난 곳 가지 않기</li> <li>·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하지 않기</li> <li>· 도둑질하지 않기</li> <li>· 싸우지 않기</li> <li>· 살생하지 않기</li> <li>· 신랑, 신부 처음으로 보지 말기</li> <li>· 상가에 드나들지 않기</li> </ul>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보리밥, 조밥)</li> <li>· 미역국</li> <li>· 메밀음식</li> <li>· 고기, 생선</li> <li>· 과일(산딸기, 탕유지, 사과, 앵두)</li> <li>· 잉어</li> <li>· 강냉이죽, 녹두죽</li> <li>· 채소(무, 감자, 고구마)</li> <li>· 삶은 닭</li> <li>· 깨(깨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어회</li> <li>· 밀가루 음식</li> <li>· 닭고기</li> <li>· 토끼고기</li> <li>· 꽃게</li> <li>· 삶은 달걀</li> <li>· 돼지고기</li> </ul>

이 외의 대다수 피면접자들은 “먹고 살기에 바빠 태교가 뭐신디 잘 몰랐어”(남-9)<sup>14)</sup>, “태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일하느라 신경 써서 그런 거 못했어”(남-14), “생활이 어려워 태교하지도 못했어”(북-22) 등의 반응을 나타내면서, 태교를 실천하지 않거나 혹은 실천하지 못한 것을 경제적 궁핍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들의 응답에 비추어 볼 때, 척박한 토양을 지니고 있는 제주 전통사회의 빈곤한 삶으로 인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동에 전념하는 근면을 강요하였고, 임신부라 하여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제2장. 출산 방법

### 1. 출산 처치

제주 전통사회의 부인들은 대부분 자력으로 집에서 분만하였으며, 일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혹은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출산과정에서 길에서 출산해서 낳은 아이를 <길둥이>나 <질둥이>로, 물질 도구인 축항에서 분만했다고 하여 <축항둥이>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sup>15)</sup>.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 중에서는 대다수(125명, 93.3%)가 밭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심하면

14) 혼인전 거주지(북제주군, 남제주군)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련번호를 병기하여 피면접자를 표기하였다.

15) 제주도교육청(1996) 전계서, pp.368-370.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 보릿짚이나 벼짚을 깔고 그 위에서 힘을 쓰며 아기를 낳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출산과정에서는 50%에 해당하는 67명이 자력으로, 나머지 67명은 출산시 친정어머니(16명, 23.9%), 산파(15명, 22.4%), 시어머니(13명, 19.4%), 동네사람(13명, 19.4%), 친척(6명, 9.0%), 남편(4명, 5.9%)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한반도 본토의 출산과는 달리 조력자의 힘을 빌려 출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하지 않았던 것은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독립적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편이 도왔다는 반응과 관련해서도 ‘첫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있으며, 그 다음에도 아이 낳을 때도 남편이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나 ‘부인이 분만할 무렵 고기잡이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속신에서 볼 수 있듯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일을 부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는 진취적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출산자세와 관련하여서는 문헌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제주도 전통사회의 산모들은 분만시간이 가까우면 보릿짚을 방안에 깔고 바구니나 구덕에 옷 따위를 가득 담고 베개를 얹혀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이것을 꼭 붙들어서 엎드리고 힘을 내기에 편한 자세를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이러한 출산자세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피면접자 중 앉아서(61명, 45.5%) 또는 구덕을 안고 엎드려서(31명, 23.1%) 아기를 낳았다는 반응이 전체 68.7%를 차지하여, 누워서 낳았다고 반응한 피면접자들(42명, 31.4%)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출산시 태아의 진행 경로와 중력의 방향에 따른 분만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전통사회의 출산자세는 일찍이 과학성을 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태아는 모체 내에서 영양분의 보급을 받고 있다가 출산하게 되면 모체와 연결하고 있는 탯줄을 자르게 된다. 이러한 것을 “삼 가른다” 혹은 “태 가른다”라고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영아 사망의 원인이 삼칠일을 전후로 배꼽으로 병균이 침입하여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탯줄처리를 중요시하여 왔고, 사실상 금줄의 사용도 아기에게 배꼽이 아물 수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면접자들의 탯줄 및 태반의 처리 방법을 보면, 불태우거나(48명, 38.7%), 땅속에 묻는 경우(43명, 34.7%)와 바닷물에 던지는 방법(33명, 26.6%) 순으로 보고 되었다.

불태우는 경우는 주로 농어촌 부락에서 행하였는데 이때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였으며, 바닷물에 던지는 경우는 어촌부락에서 주로 행해졌으며, 땅속에 묻는 것이 가장 정성이 있는 처리방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제주도에서의 탯줄 및 태반의 처리에는 몇 가지 속신이 있는데, 이를테면 불에 태울 때의 재료가 미끈한 나무로 태워야 아기의 피부가 얇지 않고 곱다거나, 태반을 태우고 남은 재가 딱딱하면 장수할 아기라 하고, 남은 재가 가루가 되어 부수어지면 단명할 징조로 보았다. 땅속에 묻는 경우는 대개 단지 속에 담아 깊이 파서 묻어야 하고 단지를 묻은 장소에서 벌레가 일거나 물이 고이면 아기의 머리나 피부에 피부염 및 종기가 생기므로 옮겨서 묻어야 한다고 했다. 단지에 묻을 경우는 시일이 지나면 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는 간질병이나 결핵병 환자에게 특효약이 된다고 하여 흠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한 태반을 불태우고 남은 덩어리는 잘 보관했다가 아기 머리에 피부염이 생겼을 경우 잘 부수어 머리에 바르면 특효약이 된다고 하였다. 태반처리 장소에 있어서도 터진 방위를 택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막힌 방위에서 처리하면 동생을 보지 못하거나 자손이 끊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2. 순산주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조차연적인 존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여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초월의 메커니즘으로, 삶이 곤궁했던 제주도에서는 마을마다 신당을 마련하고, 거기에 그 마을의 수호신인 당신을 모시는 등 각종 민간 신앙적 무속이 성행하였다. 무속이란 심방을 둘러싼 종교민속으로, 제주도 민간에서는 이러한 민간신앙이 타 지역에 비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무속에 대한 신앙이 생활전반을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산육과정에서 나타난 삼승할망과 심방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술적 처방들로부터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삼신(三神)에 대한 의식은 샤머니즘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삼신은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으로, 아기를 산모의 뱃속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또한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징되어 왔다. 제주도에서의 삼승할망은 한국 농촌사회에서와 같이 태(胎)를 관장하는 상징적 존재인 동시에, 실제 존재하면서 산육을 도모하는 여인을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상징적 의미로서의 ‘삼신할망’이 노하게 되면, 아기가 앓거나 젖이 잘 안 나온다고 하여 삼신할머니의 분노를 풀기 위해 무속 의례로 ‘삼신할망 본풀이’를 행하기도 하였고, 삼일, 칠일, 백일, 돌 등의 아기행사 시에도 삼신상 혹은 할망상을 차려 빌어줌으로써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여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였는데, 이때의 ‘삼신할망’은 전통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실제 인물로서 마을마다 ‘할망’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의 역할은 산모의 해산을 돕는 조산원의 역할과 아이의 무병, 성장을 기원하는 소규모의 의례(儀禮)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자력으로 분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난산일 경우에는 할망의 도움을 받았다. 순산을 도와준 경험이 많은 덕이 있는 마을의 할머니가 주로 그 역할을 맡았는데, 구체적인 의료기구 없이도 순산을 비는 할망의 언행만으로 분만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출산시 할망이 산모의 배에 손을 얹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러한 할망에 대해서는 산후에 음식물이나 치마를 선사하는 게 관례였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무(巫)를 심방이라 부르며 그 기능은 주로 굿을 하는 데 있었다. 즉, 신과 인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인간의 바라는 것을 신에게 전하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의례 행위를 하는 기능, 굿을 해나가는 도중에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아내거나 신령을 병의해서 신령의 뜻을 전하는 점사 또는 영매의 기능, 질병을 치료하는 주의(呪醫)로서의 기능, 노래, 춤, 장단, 신화, 연극 등 모든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굿을 행하는 예인 광대로서의 기능이다.<sup>16)</sup>

16) 제주도교육청(1996) 전계서, pp.376-377.

이 중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심방이 담당하거나 심방에게 기대했던 주요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심방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혼이 육체에서 이탈함으로써 일어나는 병, 신령이 노여워하여 내린 병, 악귀가 접하여 일어난 병, 정해진 명이 다 되어 일어난 병 등이었으며, 그 치료 방법은 굿을 통한 초자연적 방법이었고 투약 등의 치료는 하지 않았다. 의료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전통사회에서 영유아의 각종 질병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요인으로서, 이러한 질병은 해산과 양육을 관장하는 상징적 의미에서의 삼승할망의 분노에 따른 것이 보았다. 따라서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심방과 굿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제주도의 산육과정에 관여했던 주술적 처방, 즉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은 크게 두 가지로서, 순조롭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 데 쓰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술적 습속은 제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습속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면접과 관련 문헌을 통해 얻어진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순산과 관련된 주술적 처방 습속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순산을 위한 주술적 심리처방

구분	처 방
출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문, 창문, 고팡문, 정지문 등 모든 방문을 열어 놓는다.</li> <li>· 켓문이나 서랍 및 장독이나 물 항아리 뚜껑을 열어 놓는다.</li> <li>· 제주 특유의 재래적 온돌인 굴뚝을 열어 놓는다.</li> <li>· 빨랫줄도 걷고 옷고름 매듭이나 치마끈을 풀어 놓는다.</li> <li>· 소땡을 모두 열어 놓거나 소땡을 들고 산모 옆에서 아래위로 흔들고 바람을 일으킨다.</li> <li>· 하얀 피마자 줄기를 세 뼘씩 잘라서 방의 네 어귀에 세워 둔다.</li> </ul>
산모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쇠 셋을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키를 비스듬히 잡고 위쪽으로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하고 떨어지는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문지도리를 톱으로 쏘 켜내어서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누에를 간 누에씨 종이를 불에 태우고 그 가루를 온수에 타서 산모에게 먹인다.</li> <li>· 성씨가 제각기 다른 집 일곱 집에 가서 열쇠를 하나씩 일곱 개 얻어다가 삶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피마자 씨를 찢어서 산모의 발바닥에 바른다.</li> <li>· 피마자씨 세 알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지붕위에 물을 던져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다가 산모에게 먹인다.</li> <li>· 미역국을 끓여서 산모에게 먹인다.</li> <li>· 소라 껍질을 산모의 양쪽 무릎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li> <li>· 엽전을 구어서 그것을 끓인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살아있는 붉은 수탉을 통째로 배를 갈라서 산모의 배 위에 마주 붙인다.</li> <li>· 꿩발을 산모의 양쪽 무릎 사이 밑에 놓고 앉도록 한다.</li> </ul>
남편 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편의 이름을 쓴 종이를 산모의 발바닥에 붙인다.</li> <li>· 남편의 이름과 생일을 종이에 써서 ‘숫강알’(걸어놓은 솔의 아래)에서 태운다.</li> <li>· 백지에 남편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태워서 섞은 물을 산모에게 먹인다.</li> <li>· 남편이 생수를 입으로 한 모금 물고 와서 산모의 입에 넣어 준다.</li> <li>· 남편이 물구덕을 진다.</li> <li>· 첫째 분만시 남편이 개입하면, 다음 애들을 분만할 때도 개입해야 순산한다.</li> <li>· 산아의 부친이 분만하는 장소에 개입해야 옳을 처지인데도 마침 집 밖에 나가서 없을 경우에는 부친의 아래옷을 산모에게 입히거나 혹은 아래옷으로 산모의 허리를 묶든지 허리를 덮어주어야 순산한다.</li> <li>· 첫째 분만시 남편이 개입하면 다음 애들을 분만할 때에서 개입해야 쉽게 분만한다. 첫째 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애들을 분만할 때도 개입하면 안 된다.</li> </ul>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전통 사회의 순산을 위한 주술은 크게 출산환경과 산모에 대한 직접적 처치 그리고 남편의 참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산환경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주술적 처방은 ‘열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산모의 산도가 무사히 열려 순조롭게 분만하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산모에게 직접 가해지는 처치들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종의 심리처방적 성격을 지닌 것들로서, 산고를 겪는 산모들에게는 이러한 주술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순산 주술에서 출산이 여성의 몫이지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에 남편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함께 참여했다는 의의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주술에는 자력으로 분만하는 과정에 남편의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뜻과 산고를 부부가 분담한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주도의 남편관련 순산 주술은 한반도 본토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즉 남편의 허리끈을 임신부의 배 위에 둘러주거나, 남편의 버선이나 신발로 임신부의 배를 문지르거나, 남편이 신발을 거꾸로 신고 변소에 가서 힘을 쓰거나, 임신부 옆에서 지켜 서있거나 하는 등이 그 예이다<sup>17)</sup>. 이러한 주술적 처방들은 초월적 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의료적 기술의 발달이 미흡했던 당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주체들의 능동적 대처 방안으로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 제3장. 산후속

#### 1. 산모 관리

산모의 산욕(産褥)은 제주 여성의 근면성과 생활난으로 인해 충분하지가 못했다.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산욕기간으로 인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도 충분한 산욕기간을 갖는 것은 사치라고 여겨져 왔다. 이전 연구에서는 제주도 산모들의 평균 산욕기간이 2.5일로 나타나 한반도 본토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보고된 바 있다<sup>18)</sup>.

산모의 산후음식으로는 거의가 메밀수제비를 먹었다. 즉, 제주도의 산모는 메밀가루를 물에 타서 그대로 마시든지, 혹은 끓는 물에 한번 익혀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다. 메밀가루를 먹어야 지혈이 되고 피가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하여 제주 여성들은 출산 직후 먹는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겨져 왔다. 메밀수제비 외에도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해어(해어)국을 먹게 되는데 해어로는 제주도 특산물이라 할 수 있는 옥돔과 북바리 종류이다. 본 연구의 피면접자들의 반응에서도 이 같은 산후음식이 제시되었는데, 산후에 특별히 따로 먹은 것이 없다고 응답한 53명을 제외하고는 메밀수제비(48명, 59.3%), 미역국(30명, 37.0%), 돼지족(2명, 2.5%), 돼지기름을 탄 막걸리(1명, 1.2%)의 순으로 나타나, 메밀수제비가 제주도 산모들에게 주요한 산후조리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 윤여송(1987) 전계서, pp.9-36.

이경복(1979) 전계서, pp.47-64.

18) 문재희(1997) 전계서, pp.23-64.

메밀은 한방에서는 교맥(蕎麥)이라고 하여 오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생의 에너지인 기를 보익하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메밀가루 수제비는 기를 북돋아주고 산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산모들이 메밀가루를 많이 먹게 된 것은 메밀의 효과적 측면의 과학성과 더불어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상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조나피, 메밀, 두류 등의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2. 신생아 관리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출생 직후 신생아의 수유나 의복, 세욕의 내용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수유의 경우, 출산 후 3일간은 젖의 분비가 안 되므로 아기에 대한 수유방법으로는 숨에다 꿀물, 설탕물을 적서 빨게 하였거나 젖어머니의 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분만 후 3일째 목욕한 다음 수유하기 시작하였는데, 산모의 젖이 잘 나지 않을 때에는 ‘돼지 발 넷이나 돼지 머리를 달여서 산모에게 먹이거나, ‘떡이 있는 할머니를 모셔다가 산모의 유방을 한참 문질러 주거나, 심방을 데려다 상을 차리고 빌어 주었다.

신생아 의복에 있어 제주도 전통사회에서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남성의 갈중이<sup>19)</sup>로 아기의 몸을 감싸주었는데, 이는 남자가 입던 갈중이로 몸을 싸야 애가 튼튼히 자란다는 속신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습속은 아기에게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일종이 주술로 풀이될 수 있다. 아기를 낳아서 사흘이 되면 베로 지은 <봇뒤창옷>을 입히는데, <봇뒤적삼>, <베창옷> 등으로도 불리는 이 옷은 시어머니가 만드는 것이 상례였으며, 삼칠일 정도까지 입혔다고 한다. 태어나면 봇뒤창옷을 입혀야만 비로소 독립된 인격으로 다루어진다고 여겨, 가난한 집안에서는 낡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남에게 빌리고 며칠 동안 입혀야 했다. 또한 아기가 삼베옷을 입고 따가워 몸을 뒤척일 때마나 몸에 묻은 것이 떨어져 나가 피부병을 막는다거나, 아기의 건강이 나쁘면 이 옷을 아기 머리맡에 두면 아기가 잘 자란다고 믿는 속신이 전해지기도 한다.

신생아의 세욕에 있어서는 쭈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산후 산모의 목욕뿐만 아니라 산모의 회음관리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출산 3일째 되는 날, 쭈을 삶은 물로 산모와 아기가 목욕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몸을 청결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낫은 피를 제거하고 몸을 소독시키고 신생아의 피부를 고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산모가 사용하는 쭈은 특히 단오 날에 뜬 것이 효험이 있다고 하여 제주도에서는 단오날에 뜬 말려 두었다가 약초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쭈의 사용은 의학적 관점에서도 그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한방에서 애엽(艾葉)이라 하여 항균작용이 있고, 자궁의 출혈을 지혈시키는 약초로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62.7%에 해당하는 84명의 피면접자가 출생 후 3일째 되는 날 아기를 쭈물로 씻었다고 응답하여, 제주도의 전통적 양아 습속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9) 무명으로 만든 바지와 저고리에 감물을 들인 제주 특유의 재래 일상복인 갈옷 가운데 바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탄생의례

부정(不淨)은 일종의 민간 신앙적 질병관으로, 외지에서 온 나그네, 광대들은 부정한 사람, 살생은 부정한 행위, 해산, 월경 등은 부정한 상태이고 이러한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초자연적 인식이다<sup>20)</sup>.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전통사회에서는 출산을 하면 이를 알려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출생한 아기의 성별을 알리기 위해 일정 기간 금줄을 쳤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금줄을 치는 일이 다른 지방처럼 일반적이지 않았고, 흔히 생략되었는데, 제주도의 금줄치기의 경우는 제를 지내거나 공을 들일 일이 있을 때 부정 탄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해 주로 사용하였다가 차츰 출산 후에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전체 68.7%에 해당하는 92명의 응답자가 ‘금줄을 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금줄을 친 경우에도 전통사회에서처럼 태어난 아기의 성에 따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고, 새끼줄이나 숯, 고추, 유자잎이나 꿀엿, 술가지, 흰종이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으로 응답이 나타났다(42명, 31.3%).

한편,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삼칠, 백일, 돌과 같은 아기행사가 있었다. 이러한 아기행사는 아기의 성장발달의 시점과 당시 사회의 사고체계나 신앙체계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동시에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아기행사 때마다 아기의 감각발달, 특히 미각과 청각발달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up>21)</sup>. 제주도에선 아기행사로 치셋메, 사흘메, 일뿔메, 백일, 돌이 있었는데, 치셋메는 출산케 해 준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차리는 상을 이야기하고, 사흘메는 분만후 사흘째 그리고 초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뿔메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행사의 내용과 의미는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출생 후 첫 행사로서 출생하자마다 삼승할망에게 출산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할망상을 차렸는데, 이를 치셋메라고 한다. 출생후 3일째 되는 아침에는 일찍 산모와 아기는 쑥물로 머리와 몸을 씻고 아기밥을 지어 삼신할머니에게 빌었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며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하였는데, 이 때 아기밥은 친정어머니가 쌀밥과 생선미역국만을 준비하여 아기 앞에 차려 놓아주었다. 시어머니는 3일째 되는 날에 일반적으로 아기구덕을 마련해 주면서, 부계 모계 가족 모두가 분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다. 태어나서 삼일간은 인간의 생존이 불확실하다고 보면서 신의 관리 밑에 있어 생사의 중요한 관문으로서 생존권이 확인되어 가는 하나의 단계로 보았다. 생후 3일은 산모에게 있어서는 회복기이며 영아도 바깥세계에 적응되는 시기이며, 제주도 전통사회에서의 산욕기가 평균 2일에서 3일로 볼 때, 산모는 노동의 현장으로 나가는 시기이자 아기에게는 인생의 첫출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면접결과, 응답자의 77.6%(104명)이 삼신할망상을 차렸다고 반응을 보이면서 일반적인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생후 칠일 째를 첫이레, 초이레라고 하면서 산모가 아기를 씻기고 깃 없는

20) 강득희(1983) 「부정에 대한 인식 및 의존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pp.252-274.

21) 유안진(1990) 전계서, pp.238-254.

배내옷으로 갈아입히고 아기의 한쪽 옷소매를 풀어주고 방안을 정돈하고 산모도 몸 손질을 한다. 새벽에는 흰쌀밥과 미역국을 장만하여 삼신상을 차려 아기의 무병장수와 남동생보기도 그리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을 빌었다. 두칠은 흔히 아기의 출생후 두 번째 칠일 즉 14일째 되는 날로, 또한 삼신상을 차렸으며, 꼽쳐서 아기출생 후 19일째나 21일째 되는 날을 삼칠이라 하여 삼신상을 차려 아기와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아기의 장수와 장래의 성공과 새로 태어난 아기의 남동생을 더 보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려 이 삼신빌기를 마치면 비로써 금줄을 걸어 외인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대체로 삼칠까지를 산모나 아기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았다.

제주도에서는 삼일행사를 한 경우 칠일행사는 거의 생략하였는데, 만약 3일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칠일 행사를 삼일 행사의 형식과 동일하게 치렀다. 면접결과, 일뤼메라고 하여 삼승할망상을 차리고(21명, 15.7%), 억새풀 가지를 밥 위에 꽂거나, 어머니 옷을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렸다고 보고한 피면접자도 있었다. 특히 분만 후 차려 놓는 치셋매는 분만케 해준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의 사흘째의 사흘매, 이레째의 일뤼메는 탈 없는 양육을 기원하는 뜻으로, 전통사회의 삼신빌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면접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신행사는 일반적이었던데 비해 칠이나 백일, 돌잔치는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제주도민의 경제적 여건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되며, 아기에게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면 아기가 단명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위안을 삼기도 하였다.

#### IV. 나오기

시공간적 그리고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의 전통 산속은 분명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 출산 전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습속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대상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제주의 전통 산속에 나타난 특징적인 부분을 한반도 전통사회의 산속과 비교하면서 간추려 보고자 한다.

첫째, 기자속과 태교실천에 있어서의 습속에 관해서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농경사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서 다남을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남아 선호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사회로, 여러 가지 기자속이 행하면서 남아 잉태를 위한 노력을 중시하였다. 이에 비해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남아선호사상이 강력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제주의 환경적 조건과 그에 대응하는 제주도민의 생활양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밭농사에의 참여와 물질의 이중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삼중지도, 칠거지악과 같은 전통사회에서의 여성 모델과는 차별화되는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여아에 대한 가치절하나 남아잉태를 위한 기자속의 실천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태교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모성과 부성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비해, 제주도의 전통사회에서는 태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임신부의 보호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노동에 전념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출산방법과 관련 있는 습속에 관해서이다.

출산전후의 습속에 있어 다른 지역의 전통적 습속과의 차이는 출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남편의 참여와 출산의 자세, 출산후의 산육과정, 출산의 표식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주의 전통사회에서 출산은 대부분 자력으로 이루어졌으나, 남편과 관련된 순산주술 및 속신이 발달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남편의 역할이 컸으며, 이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앉아서 혹은 구덕을 안고 엎드려서 출산했던 자세나, 메밀수제비를 출산후 음식으로 먹은 것, 쭉을 이용하여 회음관리를 했던 습속 등은 출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어진 환경을 백분 활용하여 산후 회복의 효과성을 추구한 과학적 산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한편, 산육일의 경우, 한국 전통사회에서 보통 금줄을 걸어내는 삼칠일까지 허용적 이었으나, 제주도에서는 그 정도의 산육기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제주도의 전통사회 산부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틀 혹은 사나흘 정도의 짧은 산육기를 가졌으며, 출산과 탄생의 표식이자 산육기의 상징인 금줄 또한 제주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제주 여성의 근면성과 궁핍한 생활난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민간신앙적 무속성과 연관된 습속에 관해서이다.

바람이 잦고 비가 많은 기후조건 속에서 어로행위가 중요한 생업이었던 제주 전통사회에서는 초월적 존재에게 의존하는 무속적인 민간신앙이 생활 전반의 중요한 사고체계로 작용하였으며, 산육과정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삼신은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력한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어왔는데, 제주도에서는 삼승할망을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상징적 신의 존재로 인식하는 동시에 실제 산육과정에 참여하여 조력했던 후덕한 할머니로써 구체화시킨 것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삼승할망으로 불리는 이는 산모의 순산을 빌어주고 아이의 건강을 기원해 주는 의례를 행사하였으며, 제주도 부녀자들의 심리적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아이가 많이 놀랐을 때는 녀들이는 할망이, 심각한 질병을 앓을 때는 의료적 목적으로 굿을 하는 심방이 산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제주 전통사회의 산속에는 민간신앙적 요소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초월적 힘의 매개자로서 할망, 녀들이는 할망, 심방 등에 의존하는 한편, 자립적 극복 의지로서의 주술적 처방도 많이 나타났다.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은 크게 순산과정과 질병예방 및 치료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를 살던 주체들의 능동적 대처라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의 전통 산속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하나의 문화로서, 여기에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척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극복과 부조의 정신 그리고 초월적 존재를 통한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주인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제주 전통 속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간략히 표현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제주의 전통 산속은 노동에 기반을 둔 자립지향의 문화이다.

둘째, 제주의 전통 산속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공동체지향의 문화이다.

셋째, 제주의 전통 산속은 심방과 주술을 매개로 하는 심리처방의 문화이다.

## 참고문헌

- 강득희(1983) 「부정에 대한 인식 및 의료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 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pp.252-274.
- 강문정(1988) 「일부 제주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8.
- 강지영(1994) 「조선 전기 아동교재의 내용분석」,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53.
- 고부자(1976) 「제주도의 산후숙」, 한국민속학 제 9집, 민속학회, pp.93-111.
- 김승찬(1993) 「거제도지역의 금기생활」, 한국문화연구 제 6호, 부산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pp.464-481.
- 김중숙(1989) 「조선시대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2.
- 김항원(1990)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85.
-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대학교출판부, pp.21-26.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 신행철편,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pp.403-424.
- \_\_\_\_\_(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교출판부, pp.103-113.
- 류점숙(1987)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 대한가정학회, pp.141-152.
-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3-76.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도서출판 각, pp.93-96.
- 신양재(1994) 「조선시대 풍속지에 나타난 아동양육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한국가정관리학회, pp.291-228.
- \_\_\_\_\_(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한국아동학회, pp.183-196.
- 오미경(1991) 「전통사회의 태교사상과 산육속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문헌 중심으로」,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0.
- 오선명(2001) 「한국 전통 산속의 교육적 의의」,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76.
- 우영희(1989) 「조선시대 교훈서를 통해 본 자녀양육: 동몽선습, 격몽요결, 사소절, 고암기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98.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pp.28-254.
- 윤여송(1987) 「전남지방의 산후숙」, 호남대학 논문집 제 8집, 호남대학교, pp.9-36.
- 윤치부(2000)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삶」, 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차 워크숍자료,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pp.7-22.
- 이경복(1979) 「조선시대 산속 연구」, 한국민속학 제 11집, 민속학회, pp.47-64.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pp.281-290.
- 정순덕(2000) 「제주도 여성교육의 역사」, 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차 워크숍자료,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pp.33-57.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 문화』, 제주도교육청, pp.368-377.
- 최인하·김미영·배영동·표인주·나승만·황루시·윤광봉·황인덕(2002) 『한국민속학 새로읽기』, 민속원, pp.185-189.
- 하수연(1999)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80.
- 한양명(1999)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 16호, 비교민속학회, pp.109-127.
- 한경운(1986) 「전통적 여성역할 규범에 대한 제주도 여성들의 태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1.



##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제주, 전통 산속, 민간신앙, 태교 Jeju,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popular beliefs, prenatal care
<p style="text-align: center;"><b>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in Jeju</b></p> <p style="text-align: right;">Lee, Kyeong-Hwa</p> <p>This study interprets the meaning of traditional childbirth of Jeju in the context of its traditional cultural value. The data in the study contain traditional customs childbirth in Jeju through interviews with elder women.</p> <p>Interviewees in the study are 134 elder women over 60 who were born, and had the experiences of parturition and nurturing. Semi-standardized individual interviews were made to these women asking their experiences of childbirth. These interview materials were, first demographically quantified, and analyzed in the seven areas of views of child-care, prenatal caring, methods of parturition, incantatory prescription of parturition, management of a woman in childbed, management of new-born baby, and childbirth anniversary ceremony.</p> <p>The study reveal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ltural childbirth in Jeju:</p> <p>First,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in Jeju are labor-oriented self-reliance culture.</p> <p>Second,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in Jeju are community-oriented culture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whole family and local people.</p> <p>Third,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in Jeju are psycho-therapeutic culture utilizing Simbang and incantation.</p>	
필자 인적사항	<p>성명(한글): 이경화      (한자): 李京和      (영문): Lee, Kyeong-Hwa</p> <p>국문제목: 제주도 전통 산속(産俗)의 의미 이해</p> <p>영문제목: Understanding the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in Jeju</p> <p>소속: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p> <p>주소: 부산 남구 대연 3동 599-1</p> <p>전화: 010-2858-4127</p> <p>E-mail: khlee@pknu.ac.kr</p>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09. 02. 23.    심사일 : 2009. 03. 04.    심사완료일 : 2009. 03. 14.